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귀옥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박조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SNS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SNS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 이러한 이용 동기가 이용자들의 성별, 이용 시간, 우울감과 함께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관계 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 추구의 6개 동기가 추출되었고, 자기표현 동기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오락 추구 동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집단에서 일상 탈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나 성별, 우울 수준별 SNS 이용 동기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또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성(性)과 SNS 이용 시간, 우울 및 SNS 이용 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과 이용 시간, 우울의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상 탈출, 오락 추구, 자기표현 동기가 높으면 SNS 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SNS 이용 동기 • SNS 중독 • 우울 • 요인 분석 • 회귀 분석

* guiohk@sejong.ac.kr, 제1저자

** parkjowon@hanyang.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2/3가 넘는 68.2%가 최근 1년 이내에 SNS(Social Networking Sites)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나 노인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SNS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92.8%가 SNS를 이용하며 30대와 40대의 SNS 이용자 비율은 각각 86.0%와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제 SNS는 사람들 간의 소통에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SNS를 통해 소식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SNS는 이제 단순히 소통의 수단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면서 게임, 쇼핑 등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SNS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 생활의 주요한 영향원으로 부상한 SNS 이용과 사람들의 정서 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과도한 SNS 이용이 불러오는 중독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SNS 이용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용 동기가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SNS 중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기애(서정현·조성현, 2013), 외로움(박웅기, 2013; 윤명숙·박완경, 2014; Xu & TAn, 2012), 사회관계(강현욱, 2013; Oh, Ozkaya, & LaRose, 2014) 등의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하지만 SNS는 게임이나 다른 행위적 중독과는 다르게 미디어를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이므로 미디어 이용의 관점에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동기를 먼저 도출하고, 인구학적 속성들 가운데 성별에 따라 이용 패턴이 다르다는 기존의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Barker, 2009; Gross, Juvonen, Gable, 2002; Jonier et al., 2005)에 착안하여 이용 동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며, 나아가 동기가 이용자의 심리 상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동기와 이용자의 우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 동기가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과 우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해 확인하고자 한다.

2. 문헌 연구

1) SNS 중독

SNS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연구자들은 과도한 몰입과 사용이 주는 부정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기존 연구들은 SNS의 과도한 사용 행동에서도 다른 행위 중독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며 SNS 중독도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Andreassen & Pallesen, 2014; Andreassen, Torsheim, Brunborg, & Pallesen, 2012).

SNS 중독은 “SNS에 과도한 관심과 강한 사용 동기를 지니며, 다른 사회적 활동이나 학업, 직장, 대인적 관계, 심리적 건강이나 안정을 해칠 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된다(Andreassen & Pallesen, 2014). 따라서 SNS에 중독되면 다른 중독에서 나타나는 행동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Andreassen, 2015; Griffiths, 2005). 즉, SNS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며(현저성), 이어서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SNS를 이용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점점 더 SNS를 하려는 충동을 느낀다(내성). 나아가 중독자들은 죄의식이나 우울, 불행감 등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문제를 잊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며(기분 조절), 만약 SNS를 할 수 없게 되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 대해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금단 증상). 결국 SNS 시간을 줄이고자 시도를 하지만 대개 스스로 이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며(재발),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다른 활동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갈등).

중독 관련 기존 연구들은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만 중독자들은 SNS 이용이 비호의적 결과(unfavorable consequences)를 초래하며, SNS 이용 활동이 통제할 수 없고 충동적(uncontrolled and compulsive)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Griffiths, 2010). 즉, 중독자들은 SNS 이외의 활동에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이로 인해 건강이나 수면의 질, 사회관계 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SNS 중독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는 중독의 정도라 할 수 있는 중독률이다. 측정 도구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스마트폰 중독을 광범하게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를 통해 SNS 중독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군은 2017년 18.6%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 과의존 위험군이 19.3%로 남성의 18.0%에 비해 지속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고위험군 3.6%, 잠재적 위험군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SNS 과의존에 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폰의 과의존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중의 하나가 SNS라는 점을 감안할 때 SNS는 중독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NS는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데 게임보다 더 영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eong, Kim, Yum, & Hwang, 2016).

그러나 이러한 중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도구의 개발도 연구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인터넷 중독 관련 측정 도구를 가장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중독 측정에 적용하기도 했다(Andreassen et al., 2012). 최근에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중독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도 개발되고 있다(Turel & Serenko, 2012). 행동 경향에서 나타나는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를 SNS 이용 맥락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거나(Elphinston & Noller, 2011), 영(Young, 1998)이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Wu, Cheng, Ku, & Hung, 2013). 페이스북에 초점을 맞춘 측정 도구는 다른 SNS 사용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일반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Andreassen & Pallesen, 2014). 우리나라의 인터넷정보화진흥원에서 2002년 개발한 K척도는 영(Young, 1998)의 척도를 근간으로 개발된 것이며, 2016년 개발된 S-척도는 이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스마트폰의 일상사용에서 나타나는 현저성과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를 중심으로 아홉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기존 연구들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의 차이를 공통적으로 제기한다(이정화·김호영·강정석, 2017; Acar, 2008). 윤명숙과 박완경(2014)의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보다 SNS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중독 성향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SNS 중독의 차이가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질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개인의 성격 특성이 SNS 중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이 높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SNS 중독과 관련성이 높은 반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중독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Andreassen et al., 2013). 한편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이 인터넷 중독 및 SNS 중독과 관련성이 높음이 증명되기도 했다(Kim et al, 2008; Kuss & Griffiths, 2011).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 특히 자신에 대한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SNS 중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성향의 차이가 성의 차이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성의 차이는 중독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정화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남자 대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SNS 중독은 게임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처럼 개인의 심리적 상태인 우울과 관련성이 높다(김민규 · 김주환, 2008; 이정운 · 이상희, 2004).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에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장성화와 조정덕(2010)의 연구는 우울이 중독의 하위 영역들에서 유의미한 예측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최은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트위터의 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요타와 클레프타라스(Giota & Kleftras, 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점검한 윤명숙과 박완경(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중독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울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우울과 SNS 중독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 동기와 함께 우울과 SNS 중독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2) SNS 이용 동기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심리적 상태가 SNS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러한 변인들이 SNS를 이용하는 동기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동기로 SNS를 사용하고,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SNS를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대체하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더욱 SNS에 몰입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NS의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SNS의 이용 동기에 주목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SNS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SNS 이용자는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이용자의 개념과 잘 부합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며 스스로 미디어의 선택 동기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과 충족 이론은 SNS의 이용 특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SNS 이용 동기 연구는 국내에서는 2010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성욱과 김운한(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을 통해 SNS 이용 동기로 사회적 연결, 콘텐츠 이용, 사회적 네트워크 검색, 오락의 4개 요인을 밝힌 바 있다. 김유정(2011)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 결과 페이스북 이용 동기 요인을 더욱 세분화해서 파악했는데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성, 친구와의 교류, 친구 정보 검색, 여가 선용, 인맥 관리, 현실 도피, 동참하기, 외로움 탈피의 10개 동기를 추출하였다. 이(Lee, 2013)는 페이스북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 동기를 도출한 결과 자존감 추구,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자기표현, 새로운 트렌드의 6개 이용 동기를 제시하였다. 최근 노영(2016)은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연구를 통해 자기표현, 정보 활용, 소통, 시간 보내기의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그리고 신명희(201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동기를 조사한 결과 자기표현, 정보 활용, 관계 및 소통, 시간 보내기의 4개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박진우와 김덕중(2014)은 정보 교류, 관계 맺기, 자기표현의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지영, 신재권, 그리고 이상우(2015)는 카카오톡 사용자 분석을 통해 지인과의 상시 접속, 관계성, 자기표현, 유행성, 정보성, 오락성을 SNS 이용 동기로 확인하였다.

파파차리시와 멘델슨(Papacharissi & Mendelson, 2011)은 페이스북 이용 동기로 표현 추구(expressive information seeking), 습관적 시간 보내기(habitual pass time), 오락(relaxing entertainment), 멋진 새로운 트렌드 추구(cool and new trend), 동료애(companionship), 실용(professional advancement), 도피(escape), 사회관계(social interaction), 새로운 사람 만나기(meet new people)의 아홉 개 요

인을 도출하였다. 스며, 엘리슨, 램프, 그리고 온(Smock, Ellison, Lampe, & Wohn, 2011)은 파파차리시와 멘델슨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을 재사용하여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앞서 바커(Barker, 2009)는 성인들의 SNS 이용 연구를 통해 시간 보내기(pass time), 오락(entertainment), 사회적 보상(social compensation), 배움(learning), 자존(self-esteem)의 이용 동기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상의 국내외의 SNS 이용 동기를 분석한 결과들을 관계, 오락, 표현, 정보 등이 SNS 이용의 주요한 동기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마다 도출된 이용 동기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구의 대상이 된 SNS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며 조사 대상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으로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최근 들어서는 SNS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SNS 이용자들은 단일 플랫폼이 아닌 다종의 SNS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SNS를 3개 선택하도록 한 결과 20대의 86.1%가 페이스북을, 52.2%가 인스타그램을, 45.6%가 카카오토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 SNS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SNS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의 이용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SNS의 주사용층인 대학생들은 과거와 비교할 때 기능이나 쓰임새에 맞추어 다양하게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용 동기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의 SNS가 아닌 전반적인 SNS 이용에 맞추어 동기를 새로이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SNS 이용 동기와 중독의 관련성

우리나라에서 SNS 이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관계로 그리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SNS 중독과 이용 동기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다른 동기에 비해 시간 보내기, 현실 회피 같은 특정 동기가 SNS의 문제적 사용과 관련성이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Marino, Gini, Vieno, & Spada, 2018). 또한 이용 동기와 중독의 관계를 중재하는 인구 통계학적 혹은 사회 심리학적 변인들도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Philipp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SNS 이용 동기와 중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표 1〉), 먼저 이희복 외(2015)의 연구는 중학생들의 SNS 사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살펴본는데, 시간 보내기, 재미 추구 동기로 SNS를 사용할수록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정춘화(2018)의 연구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일일 평균 사용량, 성별, 대인 관계 능력 등이 중독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동기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밝혔지만, 동기의 하위 차원을 도출하지 않아서 어떤 동기가 중독과 연관되어있는가는 보여 주지 못했다.

성인의 SNS 사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표 1〉), 이(Lee, 2013)는 20~4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SNS 이용 동기를 도출한 결과 자존감 추구 동기

표 1. SNS 이용 동기와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

	분석 대상 SNS	조사 대상	이용 동기	분석 결과
Lee(2013)	페이스북	20-40세	자존감,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자기 표현, 뉴트렌드,	여성의 중독 경향이 높으며, 현실적 자기애, 수줍음이 중독과 연관성이 높음. 자존감 추구 동기가 가장 중독과 연관성이 높음.
이희복·김대환·최지윤·신명희(2015)	다중	중학생	자기표현, 정보 활용, 관계 및 소통, 시간 보내기	재미, 시간보내기 동기가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침.
성요한나·현명호(2016)	페이스북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정보 탐색, 엔터테인먼트, 자기 확인, 유대감 확인 동기	커뮤니케이션 동기, 정보 탐색 동기 및 자기 확인 동기에서 중독에 대한 경험 회피의 매개 효과가 나타남.
노영(2016)	페이스북	20대	정보 탐색, 관계 형성, 즐거움, 자존감	관계 형성과 즐거움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몰입 또한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노미진·장성희(2016)	다중	성인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로 구분. 감정적 동기는 오락성과 환상, 인지적 동기는 SNS에서의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	감정적 동기인 오락성과 환상은 SNS 중독에 정(+)의 영향, 인지적 동기인 정보 부담과 시스템 사용 부담도 SNS 중독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춘화(2018)	다중	고등학생	단일 변인	SNS 이용 동기, SNS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성별, 대인 관계 능력이 중독에 영향을 미침.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

가 SNS 중독과 가장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일수록, 자기애와 소심함이 높을수록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페이스북 이용 동기와 중독 성향 사이에서 경험 회피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성요한나와 현명호(2016)의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 동기로 커뮤니케이션, 정보 탐색, 엔터테인먼트, 자기 확인, 유대감 확인 동기를 추출하였는데, 이용 동기가 높고 경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클수록 SNS 중독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동기, 정보 탐색 동기 및 자기 확인 동기와 경험 회피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영(2016)은 몰입을 매개로 한 페이스북의 이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관계 형성과 즐거움 추구 동기가 몰입을 매개로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노민지와 장성희(2016)는 성인의 SNS 이용 동기를 감정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로 구분하고, 이들 동기와 중독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SNS의 이용 동기 가운데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확인하고, 이용 동기와 중독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 몰입, 경험 회피 같은 중재 변인을 검증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동기와 중독의 연관성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우울의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성별, 사용 시간과 함께 우울의 영향을 추가로 점검함으로써 대학생들의 SNS 이용 동기와 중독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는 우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성, SNS 이용 시간, 우울을 통제했을 때, SNS 이용 동기는 SNS 중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본의 특성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NS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7년 9월에 경기도의 한 종합 대학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대학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수업 종료 후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나 학생회관, 도서관, 단과대학 학생 라운지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400여 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9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된 396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203명(51.3%)이었으며 남성은 193명(48.7%)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0.93세(표준 편차: 2.36)였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2.9개(표준 편차:1.8)의 SNS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14.5분(표준 편차: 86.2)이라고 답했다.

2) 변인 측정

(1) SNS 중독 측정

SNS 중독은 2010년 들어 연구되기 시작한 주제로 아직 ‘중독’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중독’, ‘중독 성향’, 혹은 ‘과의존’이란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박웅기, 2013; Echeburua & de Corral, 2009).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연구들이(Andreassen, 2015) SNS 중독도 게임 중독 등과 유사한 행동적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동의하고 있고, 이들 용어 간의 의미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중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피쓰(Griffiths, 2005)는 어떤 활동을 과도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중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현저성(salience), 기분 조절(mood modification), 내성(tolera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ndrome), 갈등(conflict), 재발(relapse) 등의 반응이나 결과가 나타나면 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SNS를 통제할 수 없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그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중독의 단계로 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Young, 1998)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를 기초로 다른 연구(이성준, 2013; 조성현·서경현, 2013; Jung & Kim,

2014)에서 SNS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척도를 수정해 사용하였다. SNS 집착 및 금단 현상, SNS 과잉 소통과 몰입, SNS에 과도한 시간 소비, 문제적 결과들로 구성된 여섯 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여섯 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SNS 중독의 평균은 2.5345(표준 편차: .97713)으로 나타났으며, 여섯 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SNS 이용 동기 측정

SNS 이용 동기 항목은 선행 연구(김유정, 2011; 심성욱·김운한, 2011; 이희복 외, 2014; Barker, 2009; Papacharissi & Mendelson, 2011)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을 취합해 1차로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조사를 통해 미디어 이용 동기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간과했던 자기표현 관련 문항과 자존감 추구 관련 문항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SNS 이용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26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다.

(3) 기타 변인: SNS 이용 시간, 성(性), 우울

SNS 중독은 SNS 이용 시간과 직결되는 변수이므로 이용의 정도를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분)'으로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SNS 이용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대개 남성에 비해 여성이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운명숙·박완경, 2014). 이 외에도 SNS 이용 동기나 자아도취적 성향 등에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 패턴에도 성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이정화 외, 2017; Acar, 2008). 이 연구에서는 SNS 이용 동기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

1) 재미있기 때문에, 흥미롭기 때문에, 긴장감/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할일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습관이기 때문, 일상생활의 복잡함을 잊기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리기 위해, 나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 나의 개성 표출을 위해, 나의 존재 과시를 위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취감을 주기 때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친구들과의 추억 공유를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관심 분야 정보 습득을 위해, 생활에 유용한 정보 습득을 위해,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기 위해,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고 이러한 차이가 SNS 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SNS 이용 수준이 높고, 중독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윤명숙·박완경, 2014; 최은진 외, 2012). 이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우울 성향이 구체적으로 SNS 이용 동기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SNS 중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한다. SNS 이용자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을 사용하였다. PHQ-9은 1999년 일차 의료 기관에서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 형식의 측정 도구로서 2008년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Han, Jo, Kwak, & Bae 2008; Park, Choi, Choi, & Kim, 2010). PHQ-9은 지난 2주간의 불쾌감, 우울감, 수면의 변화, 피로감, 식욕의 변화, 죄책감,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좌불안석 또는 처진 느낌, 자살 생각의 아홉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요소는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거의 매일 그렇다)까지로 채점되어 총점은 2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2010년 수행된 한국판 PHQ-9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에서는 0~4점을 우울증이 아님, 5~9점을 가벼운 우울증, 10~19점을 중간 정도 우울증, 20~27점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하였다(Park et al., 2010). PHQ-9은 비교적 짧은 문항으로 우울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임상에서 사용되는 척도이다(윤서영·임재형·한창수, 2012). 이 연구에서 아홉 개 항목의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α)는 .86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응답자들의 우울감 평균은 7.22(표준 편차 5.67686)로 가벼운 우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 결과

1) SNS 이용 동기

첫 번째 연구문제인 “SNS 이용 동기는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는가?”에 답하기 위해 26개의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 요인 분석에서 적재치가 낮은 항목 세 개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섯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은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는 데 적절한 방법인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

표 2. SNS 이용 동기 요인 분석 결과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관계 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 추구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리기 위해	.892	.062	.147	.067	.071	.001
나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	.881	.015	.114	.236	.101	.009
나의 개성 표출을 위해	.814	.071	.157	.083	.254	.035
나의 일상 기록을 위해	.804	.218	.067	.120	-.031	-.030
나의 존재 과시를 위해	.772	.020	.053	.069	.391	.000
일상생활의 복잡함을 잊기 위해	.084	.783	.052	.015	.259	-.015
긴장감/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017	.704	.156	.089	.044	.174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012	.685	.168	.001	-.056	.115
기분 전환을 위해	.043	.660	.252	-.005	.000	.250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191	.637	-.013	-.063	.454	-.140
습관이기 때문에	.132	.589	.001	.178	-.011	.230
생활에 유용한 정보 습득을 위해	.085	.154	.831	.178	.063	.127
관심 분야 정보 습득을 위해	.118	.091	.780	.110	.112	.080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기 위해	.163	.233	.734	.093	.042	.065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125	.059	.566	-.008	.520	.147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130	.044	.112	.882	.047	.114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	.078	.006	.072	.788	.151	.007
친구들과의 추억 공유를 위해	.265	.136	.166	.731	.039	.104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425	.028	-.043	.177	.689	.055
화젓거리를 만들기 위해	.184	.162	.230	.211	.572	-.163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085	.142	.411	.019	.530	.276
재미있기 때문에	.001	.269	.140	.124	.057	.882
흥미롭기 때문에	-.018	.275	.201	.093	-.009	.863

고유값	6,671	3,207	1,945	1,635	1,262	1,015
분산 설명력	17,044	13,604	11,623	9,636	8,321	8,185
누적 설명력	17,044	30,648	42,271	51,907	60,229	68,414
크론바흐 알파	.916	.801	.804	.791	.604	.919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4829.125), 자유도(253), 유의 확률($p < .001$)

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하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도출은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항목들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KMO) 검정과 구형성(sphericity)을 확인하는 바틀렛(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KMO 값은 .838이었으며, 바틀렛 구형성 검정은 근사 카이제곱 값이 4829.125이었고 유의 확률은 $p < .001$ 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추출된 여섯 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68.41%로 나타났다. 추출된 여섯 개의 요인은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관계 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 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내 항목 간의 신뢰도는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는 다항목 척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보여 주는 크론바흐 알파를 통해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는 가장 낮은 수치가 .604였고 가장 높은 수치는 .919로 나타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자기표현’ 동기는 분산 설명력이 17.044%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자기표현 동기는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리기 위해”, “나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 “나의 개성 표출을 위해”, “나의 일상 기록을 위해”, “나의 존재 과시를 위해”의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인 ‘일상 탈출’ 동기는 13.604%의 분산 설명력을 보였으며, “일상생활의 복잡함을 잊기 위해”, “긴장감/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습관이기 때문에”의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인 ‘정보 추구’ 동기는 11.623%의 분산 설명력을 보였는데, “생활에 유용한 정보 습득을 위해”, “관심 분야 정보 습득을 위해”,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알기 위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의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요인인 ‘관계 유지’ 동기는 9.636%의 분산 설명력을 보였으며,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추억 공유를 위해”의 세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요인인 ‘자존감 추구’ 동기의 분산 설명력은 8.321%였으며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화젯거리를 만들기 위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의 세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요인인 ‘오락 추구’ 동기의 분산 설명력은 8.185%였으며 “재미있기 때문에”와 “흥미롭기 때문에”의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섯 개의 동기 가운데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동기가 상위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성별 동기의 차이

요인	성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자기표현	남자(193)	2.0912(.99204)	4.968**
	여자(203)	2.4069(1.12459)	
일상 탈출	남자(193)	3.1451(.76127)	.271***
	여자(203)	3.4195(.77632)	
정보 추구	남자(193)	3.1813(.92710)	1.106*
	여자(203)	3.3805(.88102)	
관계 유지	남자(193)	3.2971(.91689)	.729
	여자(203)	3.3530(.95189)	
자존감 추구	남자(193)	2.2884(.79731)	.317
	여자(203)	2.2397(.83810)	
오락 추구	남자(193)	3.8057(.80837)	2.480***
	여자(203)	4.2192(.65247)	

* $p < .05$. ** $p < .01$. *** $p < .001$.

2) 성별 SNS 이용 동기의 차이

성에 따른 SNS 이용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동기별로 티-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여섯 개의 동기들 가운데 네 개의 동기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섯 개 동기들 가운데 남자가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자존감 추구가 유일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존감 추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기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이 가운데 관계 유지 동기는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오락 추구 동기는 여자가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우울에 따른 SNS 이용 동기의 차이

우울에 따른 SNS 이용 동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의 수준에 따라 3개의 집단으

표 4. 우울에 따른 동기의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자기표현	우울감 없음	135	2,1378	1,02781	2,582
	경도 우울	154	2,2208	1,04015	
	우울	107	2,4449	1,15458	
	전체	396	2,2530	1,07242	
일상 탈출**	우울감 없음	135	3,0988	,80892	6,041**
	경도 우울	154	3,3874	,71980	
	우울	107	3,3754	,79110	
	전체	396	3,2858	,78024	
정보 추구	우울감 없음	135	3,2222	,98622	,966
	경도 우울	154	3,3620	,81150	
	우울	107	3,2477	,93699	
	전체	396	3,2835	,90811	
관계 유지	우울감 없음	135	3,3358	,95980	,114
	경도 우울	154	3,2987	,86753	
	우울	107	3,3520	,99982	
	전체	396	3,3258	,93424	
자존감 추구	우울감 없음	135	2,1975	,81578	,691
	경도 우울	154	2,2879	,78110	
	우울	107	2,3115	,87268	
	전체	396	2,2635	,81781	
오락 추구	우울감 없음	135	3,9852	,79396	1,614
	경도 우울	154	4,1006	,71487	
	우울	107	3,9393	,77615	
	전체	396	4,0177	,76037	

** $p < .01$ (우울감 없음 < 경도 우울, 우울)

로 구분하여 일원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PHQ-9 우울 측정 지수 기준에 따라 무우울군(0~4점), 가벼운 우울군(5~9점), 우울군(10~27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 탈출 동기에서만 우울 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우울감이 없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개 집단 간의 일상 탈출 동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약간 우울 이상의 집단에서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상 탈출 동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은 .125~.566의 상관 계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 이상, 10 이하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접속 시간과 우울 지수를 비롯한 여섯 개의 모든 동기는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통제 변인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성별과 하루 평균 접속 시간이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중독 성향이 높아 성별 차이가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34, p < .01$), 하루 평균 접속 시간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416, p < .001$). 우울을 투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하루 평균 접속 시간	우울	자기 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관계 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 추구	중독
하루 평균 접속 시간	1								
우울	.074	1							
자기표현	.160**	.147**	1						
일상 탈출	.322**	.133**	.253**	1					
정보 추구	.127*	.062	.332**	.373**	1				
관계 유지	.125*	-.009	.349**	.186**	.311**	1			
자존감 추구	.153**	.059	.493**	.362**	.500**	.331**	1		
오락 추구	.212**	-.034	.063	.415**	.356**	.228**	.175**	1	
중독	.450**	.200**	.330**	.566**	.273**	.248**	.337**	.358**	1

* $p < .05$. ** $p < .01$.

입한 ‘모형 2’에서는 우울이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 = .151, p < .01$). 끝으로 이용 동기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자기표현 동기($\beta = .120, p < .01$), 일상 탈출 동기($\beta = .352, p < .001$), 오락 추구 동기($\beta = .129, p < .01$)가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인들이 투입된 모형3의 분석 결과는 하루 평균 접속 시간($\beta = .255, p < .001$), 우울($\beta = .112, p < .01$)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화 계수를 보면 일상 탈출 동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독의 수준이 높아지며, 자기표현 동기나 오락 추구 동기에 비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은 46.6%로 확인되었으며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이 2.2% 증가하는 데 그쳐 우울은 유의미한 변인이나 중독에 대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이용 동기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설명력이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 동기가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

		β	F	R^2	R^2 변화량
모형 1	성별(남자 = 1)	-.134**	55.327836***	.220	.220
	하루 평균 접속 시간	.416***			
모형 2	성(남자 = 1)	-.109*	41.671431***	.242	.022
	하루 평균 접속 시간	.411***			
	우울	.151**			
모형 3	성(남자 = 1)	-.048	37.353289***	.466	.224
	하루 평균 접속 시간	.255***			
	우울	.112**			
	자기표현	.120**			
	일상 탈출	.352***			
	정보 추구	-.053			
	관계 유지	.066			
	자존감 추구	.089			
오락 추구	.129**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SNS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SNS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 이어 이용 동기가 이용자들의 성별, 이용 시간, 우울감과 함께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용 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관계 유지, 자존감 추구, 오락 추구의 여섯 개 동기가 추출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특기할 점은 SNS가 ‘사회 관계망’ 관리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깊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주요한 이용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자기표현이나 일상 탈출이 주요한 이용 동기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상의 어려움을 잊기 위한 도피처의 구실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오락 추구 동기는 설명력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SNS가 오락 매체로서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미디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과 우울감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앞서 성과 우울감의 정도에 따른 동기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여자의 자기표현, 일상 탈출, 정보 추구, 오락 추구 동기 수준이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우울이 중간 이상 높은 집단에서 일상 탈출 동기가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루 평균 접속 시간과 우울 지수를 비롯한 여섯 개의 모든 동기는 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성(性)과 SNS 이용 시간, 우울 및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변인들은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SNS 이용 동기가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22.4%로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SNS 중독이 높게 나타나며, 성, 이용 시간, 우울감을 통제했을 때 SNS 이용 동기 가운데 자기표현, 일상 탈출, 오락 추구 동기가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동기 가운데 일상 탈출 동기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다종의 SNS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SNS 이용 동기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SNS 이용 동기는 성과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표 1>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는 동기로는 오락이나 시간 보내기 등의 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힘들고 복잡한 일상에서 탈피하려는 동기에서 SNS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SNS라는 미디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같은 대학생이라도 성에 따라 이용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의 특성이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는 이용 동기와 우울의 관련성 점검에서 드러난다. 분석 결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한 집단에서 일상 탈출을 위해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SNS의 이용 시간과 함께 SNS 이용 동기가 SNS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수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현재의 무료한 혹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잊기 위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우울한 대학생일수록 SNS 중독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SNS 중독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하는 고위험군을 찾아낸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SNS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찾거나 사회적인 교류 및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이용할 경우는 SNS 중독과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도 SNS 이용 교육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SNS 미디어 교육에서 문제적 결과가 아닌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SNS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을 제시해 준다.

SNS 이용 동기 연구는 대개 관련 문항을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데, 연구자마다 각기 다르게 명명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차원임에도 연구 간 교차 비교를 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며 이 연구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따라서 마리노와 동료들(Marino et. al., 2018)이 제안한 것처럼, 이용 동기를 방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동기, 유형에 따라 감정적, 인지적 동기 등으로 구분한다면, SNS 이용 동기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중독 변인으로 SNS 중독을 설정하였지만 하위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중독을 내성, 금단 현상, 문제적 결과 등의 하위 차

원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더욱 정교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이들이 SNS 이용 동기 각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점검한다면, SNS 중독의 관리와 미디어 이용 교육을 위한 더욱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지만, 몇몇 연구들은 SNS 중독의 결과로 나타난 기분 상태에 우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실험, 심층 면접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한다면 우울과 SNS 중독의 관계를 더욱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욱 (2013). 대학생의 SNS 중독성향과 사회적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 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22권 1호, 121~1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2016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민규·김주환 (2008).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인불안과 우울증을 매개로 알코올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05~222.
- 김유정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0권, 71~105.
- 노미진·장성희 (2016).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의 조절효과. *경영과 정보연구*, 35권 4호, 99~122.
- 노영 (2016). SNS 이용 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e-비즈니스연구*, 17권 3호, 301~320.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권 4호, 305~342.
- 박진우·김덕중 (2014).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신뢰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권 10호, 207~219.
- 서경현·조성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권 1호, 239~250.
- 성요안나·현명호 (2016).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4권 4호, 257~263.
- 심성욱·김운한 (2011).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소셜미디어 광고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3권 2호, 342~376.
- 윤명숙·박완경 (201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SNS 중독성향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권 3호, 208~236.
- 윤서영·임재형·한창수 (2012).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를 위한 임상평가도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3권 4호, 136~146.
- 이정운·이상희 (2004).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과 우울, 외로움, 충동성, 감각 추구 및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권 2호, 145~155.

- 이정화 · 김호영 · 강정석 (2017). 외로움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권 2호, 154~164.
- 이희복 · 김대환 · 최지운 · 신명희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 *GRI 연구논총*, 16권 1호, 365~391.
- 장성희 · 조경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0권 11호, 285~293.
- 정춘화 (2018). 고등학생의 SNS 이용 동기,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심리교육연구*, 18권 1호, 637~655.
- 최은진 · 염우성 · 이선우 · 김솔 · 이청아 · 김주환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행태 연구: 자기결정성, 긍정적 정서, 스마트미디어 효능감을 중심으로. HCI 2012 학술대회 발표 논문.
- Acar, A. (2008).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nline social networking behavior: The case of Facebook. *Journal of Website Promotion*, 3(1-2), 62~83.
- Andreassen, C. S., & Pallesen, S. (2014).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 an over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20(25), 4053~4061.
- Andreassen, C. S. (2015). Online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 A comprehensive review. *Current Addiction Reports*, 2(2), 175~184.
- Andreassen, C. S., Griffiths, M. D., Gjertsen S. R., Krossbakken E., Kvam, S., & Pallesen, S.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ddiction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2(2), 90~99.
- Andreassen, C. S., Torsheim, T., Brunborg G.S., & Pallesen, S. (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110(2), 501~517.
- Barker, V. (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y & Behavior*, 12(2), 209~213
- Brown, R. I. F. (1997). A theoretical model of the behavioural addictions: Applied to offending. In J. E. Hodge, M. McMurrin, & C. R. Hollin (Eds.), *Addicted to crime* (pp. 13~65). Chichester, UK: Wiley.
- Caplan, S., Williams, D., & Yee, N. (2009).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MMO play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6), 1312~1319.
- Elphinston, R. A., & Noller, P. (2011). Time to face it! Facebook intru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romantic jealous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1), 631~635.
- Giota, K. G., & Kleftras, G. (2013). The role of personality and depression in problematic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in Greece.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7(3), 1143~1168.

- Griffiths, M. D. (2010). The role of context in online gaming excess and addiction: Some case study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8(1), 119~125.
- Griffiths, M.D.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4), 191~197.
- Griffiths, M.D., Kuss, D.J., and Demetrovics, Z. (2014). Social networking addiction: an overview of preliminary findings. In: K. P. Rosenberg, & L. C. Feder (Eds.), *Behavioral addictions: criteria, evidence, and treatment* (pp. 119~141). London, UK: Academic.
- Gross, E. F., Juvonen, J., & Gable, S. L. (2002).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75~90.
- Han, C., et al. (2008). Validat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Korean vers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Ansan Geriatric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49(2), 218~223.
- Jeong, S., Kim, H., Yum, J., & Hwang, J. (2016). What type of content are smartphone users addicted to?: SNS vs.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0~17.
- Joiner, R., et al. (2005). Gender, Internet identification, and Internet anxiety: correlates of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4), 371~376.
- Jung, S. Y., & Kim, J. N.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NS addi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147~166.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ee, S. J. (2013).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traits, gratification, and social networking sites addiction: Focusing on Facebook us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1(4), 17~39.
- Marino, C., Gini, G., Vieno, A., & Spada, M. M. (2018).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on problematic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3, 262~277.
- Oh, H. J., Ozkaya, E., & LaRose, R. (2014). How does online social networking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upportive interaction, affect,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69~78.
- Papacharissi, Z., & Mendelson, A. (2011). Toward a new(er) sociability: Uses, gratifications and social capital on Facebook. In S. Papathanassopoulos (Ed.), *Media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pp. 212~230). New York, NY: Routledge.

- Park, S. J., Choi, H. R., Choi, J. H., Kim, K. W., & Hong, J. P.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nxiety Mood*, 6(2), 119~124.
- Philipp, K., Masur, P. K., Reinecke, L., Ziegele, M., & Quiring, O. (2014). The interplay of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nd Facebook specific motives in explaining addictive behavior on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76~386
- Shaw, A. M., Timpano, K. R., Tran, T. B., & Joormann, J. (2015). Correlates of Facebook usage patt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ve Facebook use, social anxiety symptoms, and brood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575~580.
- Smock, A. D., Ellison, M. B., Lampe, C., & Wohn, D. Y. (2011). Facebook as a toolkit: A 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 to unbundling featur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6), 2322~2329.
- Turel, O., & Serenko, A. (2012). The benefits and dangers of enjoyment with social networking websit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5), 512~528.
- Wu, A. M. S., Cheng, V. I., Ku, L., & Hung, E. P. W. (2013). Psychological risk factors of addiction to social networking sites among Chinese smartphone user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2(3), 160~166.
- Xu, H., & Tan, B. C. Y. (2012). Why do I keep checking Facebook: Effects of message characteristics on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s addi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812~823.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Wiley.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16일

논문심사일: 2018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4일

Abstract

The Influence of SNS Use Motivation on SNS Addiction

Lee, Guiohk*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Sejong University

Park, Jowon**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SNS use motivations of college students and the influence of the motivations on the SNS addiction. Gender, time spent on SNS and depression were put into the analysis as control variables. The factor analysis identified six use motivations, self-expression, escapism, information seeking, social interaction, self-esteem, and entertainment. The motivation for self expression was the most powerful in the SNS uses of college students. T-test and ANOVA test revealed the differences of use motivation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level of depression. Regression analysis showed gender, time spent on SNS, depression, and use motivations predicted the addiction. Use motivation, especially escapism,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addition.

KEY WORDS SNS use motivation • SNS addiction • depression • factor analysis • regression analysis

* First author, guiohk@sejong.ac.kr

** Corresponding author, parkjowon@hanyang.ac.kr